

市 “재정 부담 늘어나지만 교육·복지 등 투자 문제없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찬반 논쟁 팩트체크

반대측 “대규모사업 억제 불가피... 운영적자·공사비 증액” 16년간 늘어난 공사비도 문제... 지방채 발행 건전재정 유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 논쟁의 핵심은 광주시의 재정 부담에 있다. 사업이 끝나는 2025년까지 800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찬성 측은 그럼에도 도시의 미래를 감안해 공공(대중)교통의 근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BRT(급행 간선버스) 등으로 대체,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줄여 나머지를 복지, 교육, 청년 일자리 등에 쓰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2호선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적인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조8011억원(전국 3조3580억원), 고용창출효과 1만8191명(전국 2만4216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에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검증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거 논쟁의 반복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2호선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분야에 사용하기 어려운데다 BRT, 노면전차 등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16년의 찬반 논쟁 속에 2호선 사업비만 계속 불풀러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호선 소요사업비는 당초 2010년 1조7394억원에서 2013년 1조9503억원, 2017년 2조579억원으로 상승했다. 2조579억원 가운데 국비(60%)가 1조2347억원, 시비(40%)가 8232억원이다. 광주시는 2호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5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9435억원인 채무액이 2024년에는 1조222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상환액도 증가하면서 다른 대규모 사업 추진은 상당기간 불가능해진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채무비율을 2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8년 이후에는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 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해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반박이다. 2호선 건설계획은 이미 광주시 중기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돼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는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연평균 사회복지 4.2%, 교육 3.8%의 재정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 특히 일자리 분야는 민선 7기 4년 동안 2조9000억원을 투입해 2만

여명 이상의 신규고용도 창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업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채무 증가, 추후 발생한 운영적자,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는 2호선을 착공한 이후 매년 1400억원에서 18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채도 행정안전부에서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5%보다 낮은 16~1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운영적자에 관해서도 상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반대 측은 운영적자 폭을 8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시는 2호선 순수 운영적자는 2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2025년 기준 210억원이며, 2020~203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운영적자는 244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1·2호선 운영적자는 2025년 기준으로 704억원 정도로 광주시는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KD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통계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측이 불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호선 사업비 증가를 둘러싸고도 의견은 다르다. 반대측은 2호선 기준 사업비 대비 준공 시 사업비가 28% 이상 증가해 결국 국 사업비는 3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해 10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대비 15% 이상 증가 시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대비 15%가 초과하지 않도록 공정별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반대측 주장과 같이 총사업비 대비 28%가 늘어 공사비가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한 전문가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으로 인해 시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논쟁이 소모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2호선을 착공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2호선을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대통령 이탈리아 도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미국과 긴밀 소통... 한미공조 최상”

일부 언론 ‘균열’ 보도 반박 해리스 “한미 한목소리 내야”

청와대는 17일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를 두고 ‘한미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철도·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는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일부 언론이 철도를 두고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고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논평한 것이 마찰이라는 취지의 보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 한미 의견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 진학 문제나 집 문제 등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혼하지는 않는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오늘 발언에 문 대통령의 의중도 포함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전적으로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남북대화과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북한 문제 관련)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미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비핵화·평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해리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면담에서 “평화와 비핵화, 어느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이뤄질 수 없고, 두 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41)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최근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상상 초월한 비리에 학부모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모든 유치원이 돈벌이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아기 생애 처음 밟 내딛는 교육기관이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뉴스는 가히 충격적이다. 안심하고 교육시

돈벌이 교육기관, 어쩌다 이지경까지...

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도 젊은 세대 저출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19세기 스위스 국민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국민화가 알베르트 앙커(1831-1910)의 작품 ‘탁아소’(1890년 작)는 오늘 우리들의 걱정이나 근심과는 무관하게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교실 풍경이다. 우리식으로 보면 어느 어린이집의 간식시간인가 보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수프를 떠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에는 관심 없는 듯 턱을 괴고 선생님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

럽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나 애정을 받으며 자랄 때만에 자부심과 균형감각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림 속 애정 어린 손길로 음식을 챙겨주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란 이래야 한다는 전형을 보여주듯 사뭇 송고해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 현실 속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모습은 어떠한지 조심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대목이다.

알베르트 앙커는 스위스 출신으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뒤늦게 화가를 꿈꾼 뒤 프랑스로 가서 루브르박물관을



알베르트 앙커 작 ‘탁아소’

오가며 거장들의 작품 모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림공부를 했다. 꾸밈없이 순박한 농촌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풍경을 주로 그려왔던 화가는 네 자녀를 두었던 아버지의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본 아이들의 모습을 정겹고 따뜻하게 묘사하기도 해 특히 아이들을 잘 그리는 화가로 손꼽혔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획득

더 큰 세상을 향한 열정과 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경영대학

- 전 세계 106개국에 걸친 Exchange Student Program
- 해외 우수대학과의 Double Degree Program
- 글로벌 현장 감각을 위한 Business Field Program



-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가 부여하는 국제경영교육인증
- 미국 주요 대학 학장들이 설립(1916년)한 비영리 인증기관,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표(교수진 역량, 우수학생 유치, 우수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인증
- AACSB 2012년 최초 인증, 2018년 재인증 획득

경영전문대학원

- 국제화 프로그램
Global MBA의 100% 영어 강의
- 전문 트랙별 MBA 교육 프로그램
실무핵심 전문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재무회계, 빅데이터, 기술경영 트랙 운영
- Capstone Project를 통한 문제해결중심교육
기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환경에 맞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제공